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수용도의 횡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

홍경자** · 박영숙** · 김정은*** · 김혜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은 월경과 관련하여 월경전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과 월경곤란증(Dysmenorrhea)이라고 칭하는 일련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월경주기의 변화중 월경전증후군은 월경을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변화로서, 월경이 시작되면 극적으로 소실되는 복합증후군이다. 월경전증후군의 발생빈도는 20% 부터 95% 까지 상당히 다양한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월경을 전후한 시기에 여성들의 범죄율, 사고율, 자살기도율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겠다. Morton(1953), Suarez-Murias(1953), Dalton(1968), Glass(1971), Luggin(1984), Mandell & Mandell(1967) 등은 자살이나 자살기도가 월경을 전후해서 가장 많았다고 했으며, 이충원(1977)의 연구에서는 월경기와 월경전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49.3%로 거의 반수에 가까웠다(이충원, 1977). 또한 월경전증후군 환자들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되고 있다(Abraham, 1983). 이와 같이 월경이 여성에게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겠고 월경전증후군이나 월경곤란증 등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의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월경전후기에 나타나는 불편감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서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는데 문화의 영향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월경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는 통증, 부정적 정서, 그것과 관련된 일상활동의 제약,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월경에 대한 태도등의 변수들이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를 밝혀 보고자 함이다.

2.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실시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이 월경전후기에 불편감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 2)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의 월경에 대한 태도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 3)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의 성역할 수용도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 이 연구는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월경전후기 불편감 : 월경전기와 월경기에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불편한 증상들로서,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정도는 Moos(1968)가 개발한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월경전증후군과 월경곤란증은 증상의 강도와 시기 상의 차이외에는 두 가지를 뚜렷하게 구분할만한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애매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월경전증후군과 월경곤란증을 통칭하여 월경전후기 불편감으로 칭하였다.
- 월경에 대한 태도 : 사회적 요인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월경에 대한 여성의 전반적인 인식을 말한다. Brooks-Gunn(1980)이 개발한 Menstrual Attitude 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 성역할 수용도 :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정도로서, Paulson의 Role Acceptance Scale로 측정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일부 대학 여대생들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집단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으며 제한적인 적용만이 가능할 뿐이다.

II. 문헌 고찰

월경은 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 사건이며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중요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사건이며(Motiff, Caspi, Belsky & Silva, 1992),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발달과 생식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가임연령 여성의 주기적인 생리적 변화이다(민애경, 1997). 이러한 월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월경전증후군이란 황체에 생기는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증상들의 복합체라고 정의된다. 월경전증후군은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문헌상 밝혀진 것이 150여가지가 된다. 안절부절, 우울, 불안, 주의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긴장, 수면장애, 두통, 변비, 복부 팽만, 요통, 유방통증, 체중변화, 성감과 활동수준의 변화 등을 포함한 150가지 이상의 증상들이 한번 이상 월경주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증후군은 월경곤란증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고 월경이 시작되면

급격히 좋아진다(Frank, 1986). 그러나 월경주기에 대해 현재 알려져 있는 것들을 요약하기에는 많은 해결되지 못한 불일치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Wilcoxon, Schrader, Sherif, 1976).

신체적 증상을 보면 월경시의 두통은 월경이 시작하기 전과 후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통은 연령, 출산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종은 월경전기에 더 심했다. 안절부절, 우울, 긴장, 두통, 부종 등의 증상은 월경이 시작하기 1-2일 이전에 극도에 달했으며 그들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한가지를 경험하는 여성은 다른 것도 경험할 가능성이 컸다(Kessel & Coppen, 1963). 그러나 Bruce와 Russell(1962)은 월경전증후군에 항상 유의한 체중증가와 수분축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월경주기에 따른 "안녕감"에 대한 자가평가점수는 후기 여포기에 최고도에 달했다가 황체기 동안에 감소하고 "신체적 통증"은 월경주기의 후반기에 상승해서 후기 황체기에 최고도에 달한다. 배란을 하는 여성은 배란전기에는 비교적 중추신경계의 각성상태가 높으며 배란후기에는 각성상태가 낮다. 각성상태의 이러한 뚜렷한 변화는 배란을 전후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듯하며, 월경이 시작되면 반대로 되어 월경전기에는 감각의 민감성이 저하된다(Friedman & Meares, 1979). 그리고 성선자극방출호르몬(GnRH)을 투여하고 몇 시간 후에는 불안과 피로감이 감소하고 각성상태와 활동속도가 증가한다. 실질적으로도 LH가 정점을 이루는 것은 특히 배란을 전후하여 각성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와 일치한다(Friedman & Meares, 1979). 또한 황체기에는 심박동수, 호흡수, 체온의 유의한 증가와 휴식시의 피부전도율의 유의한 감소가 발견되었고 배란기에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감정의 고양과 활력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Little & Zahn, 1974). 한편으로는 월경주기와 식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식욕증진, 단 것을 먹고 싶어하는 경향과 월경전기 긴장, 우울증 사이의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며 월경주기의 특수한 시기에 이러한 특정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과 월경전기의 수분 축적 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Smith & Sauder, 1969).

이와 같이 월경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정리하여 보면, 월경전증후군에 속하는 증상들 중 변비와 설사, 무기력감과 에너지의 분출, 과다수면과 불면증, 식욕부진과 식욕증진, 건조모발과 지성모발 등은 완

전히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이들은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변비, 무기력감, 과다수면, 식욕부진과 건조모발은 갑상선 기능저하시에 나타나며, 반대로 설사, 에너지의 분출, 불면증, 식욕증진, 지성모발은 갑상선 기능항진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Sutherland & Stewart, 1965).

월경전증후군의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월경전증후군이 자신의 여성다움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서 기인한다는 심리분석학적인 학설과(Berry & McGuire, 1972; Shainess, 1961) 월경에 대한 개인적 기대의 영향에 대한 이론(Brooks, Ruble & Clarke, 1977), 그리고 여성의 사회화 이론(Paige, 1973) 등이 있다. 그 외에 스트레스에의 노출이 월경전증후군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하는 학설도 있다(Wilcoxon, Schrader & Sherif, 1976; Woods, Dery & Most, 1982; Woods, 1985). 월경전증후군은 여성으로서의 자아수용과 자존심에서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다(Bernsted, Luggin & Petersson, 1984). 월경전증후군은 여성을 격하시키는 통념 때문에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속성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격하가 내부화되며 여성의 사회화의 일부분이 된다(Bernsted, Luggin & Petersson, 1984).

또한 Dalton은 월경이 시작되기 3-4일전에 여성들이 경험하는 여러가지의 통제할 수 없는 행동적 특성을 발견하였는데 자제할 수 없는 식욕이상 항진증외에도 알콜남용, 아동학대, 걱정의 분출, 난폭한 범죄등이 포함된다(Leon, Phelan, Kelly & Patten, 1986). 월경기에는 정신과 병동에서의 입원이 평균보다 많으며 월경간기에는 훨씬 적었다. 우울증에 걸린 여성들은 월경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나 월경이 시작된 첫째날에 입원빈도가 높았으며, 자살시도는 월경전기에 많이 나타났다고(Luggin, Bernsted & Petersson, 1984). Glass 등은 정신병적 성향이 있는 집단에서 월경기에 더 많은 입원 경향을 발견하였으며 월경 그 자체가 공포를 유발시킨다고 언급하였다. 그외에도 그들은 정신병적 성향이 없는 집단에서도 자살시도가 기대치의 3배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월경전후기는 신체의 신호에 대한 지각이 예민해지는 시기라는 것이다(Luggin, Bernsted, Petersson, 1984). 또한 Mandell & Mandell에 의하면 자살시도와 월경주기 사이의 관계는 병원입원에 대한 Dalton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자살시도의 빈도는 월경기 초기에 가장 높고 월경전기에 두 번째로 높으며 배란기에 세 번째인 것이다. MacKinnon

과 MacKinnon은 자살에 성공한 경우에 부검을 통해서 자궁내막 조직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가 황체기 중반기나 후반기였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Kerosene를 사용해서 분신자살한 힌두여성들을 연구한 Ribeiro는 대상자 22명중에 19명이 월경중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Mandell & Mandell, 1967).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문화권에서 공포심과 무지 때문에 월경을 둘러싼 다양한 금기와 관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Gough, 1982). Deutsch와 Benedek은 월경혈이 여성의 생산능력과 여성다움에 대한 확신이 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최악, 천함, 불결함 그리고 여성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월경과 관련된 우울증, 분노, 불안정, 불안 등은 생리적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여성 고유의 신체 기능에 대한 사회적으로 중재된 정서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지적 정의의 영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적 환경도 월경전증후군을 악화시키며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의 노출은 월경에 대한 여성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기 쉽다(Woods, Most & Longenecker, 1985; Woods, 1985).

여성의 성역할 규범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현대적인 성역할 규범을 지닌 여성이 정신건강 상태가 보다 더 양호하였다(Gump, 1971; Levy, 1976; Powell & Reznikoff, 1976). Levy(1976)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가지고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 역할과 비전통적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여성보다 심리신체적 증상을 더 자주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성역할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은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할 것이고, 더 자주 의사를 찾을 것이며, 질병과 질병 행위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월경전기와 월경기에 더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즉 성역할 수용의 정도와 월경전후기의 불편감들은 유의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김은주, 1987; 김정은, 1992; Nathanson, 1975).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월경전후기 불편감, 성역할 수용도, 월경에 대한 태도라는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연구결과 밝혀진 바 있다(김정은, 1992).

여성의 성숙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초경은 사회가 규정한 성역할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1995; 윤가현, 1993), 월경에 대한 불편감은 사회적으로 학습된다(정현숙, 1996; Coutts & Berg, 1985). 월경이 성숙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중요성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과 괴로움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월경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 된다는 것이다(정현숙, 1996).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월경전후기 불편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증상의 발현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환경변수들을 통제하고 집단 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학생들을 대상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그 외의 9개도에 소재한 대학중 각 1개 대학을 선정하여 총 13개의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시켰다. 미국에서는 동부, 중부, 서부에 소재한 대학중 본 연구에 참여하여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총 4개 대학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MDQ)

Moos가 개발한 이 도구는 월경과 관련된 증상들의 발현과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47가지의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다(Moos, 1968). 6점 척도로 된 47가지의 증상들은 통증, 집중력 저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수분축적, 부정적 정서, 각성상태, 조절등의 8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이 큰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MDQ의 내적 일치도를 검사한 결과 37문항의 Cronbach's Alpha는 0.9827이었다.

2) Menstrual Attitudes Questionnaire (MAQ)

Brooks-Gunn과 Ruble이 1980년에 개발한 도구로서, 월경에 대한 여성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7점 척도로 구성된 33문항들은 5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월경은 여성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현상임 ② 월경은 귀찮은 현상임 ③ 월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④ 월경은 시작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임 ⑤ 월경은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미쳐서도 안되는 현

상임 등이다. 각 범주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태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33문항의 Cronbach's Alpha가 0.6886이었다.

3) Sex Role Acceptance Scale

Paulson이 개발한 도구로서 31개의 문항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31문항의 Cronbach's Alpha가 0.6063이었다(Berry & McGuire : 1972).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Moos의 MDQ를 수정 보완한 Taylor의 Modified MDQ에 고유번호를 붙여 월경전기, 월경기, 월경간기의 세 시기에 대한 그 당시의 증상을 질문지에 자가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MAQ, Sex Role Acceptance Scale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9월 1일부터 1997년 4월 2일까지였다.

본 연구는 Pilot Study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고, 다음 단계로 대상으로 선정된 국내외 각 대학으로 연구자료 수집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국내대학들에는 설문지를 우편발송한 후 회수하였다. 발송부수 총 2600부 중에서 2145부가 회수되었다. 미국에서는 Human Subject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경우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관련 Committee 등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후 개개 참여자들의 consent form 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각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 각각의 과정을 거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4. 분석 방법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7.5 for Windows Graduate Pack"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빈도 등을 측정했으며,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수용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월경전기, 월경기, 월경간기에 따른 증상의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하여 MANOVA Repeated Measu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한국 여대생 2,145명이었고, 미국 여대생 412명으로서 총 2,557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73세, 최빈치는 20세였고 18세에서 22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결혼상태는 대부분이 미혼으로서 분만경험이 없는 경우가 2,462명(97.0%), 유산 역시 2,509명(99.1%)이 경험이 없었다. 평균 초경 연령은 13.4세였고, 최빈치는 13세였다. 월경의 평균주기는 29.9일이었고 최빈치는 30일이었으며, 월경의 평균기간은 5.3일이었으며 최빈치는 5일이었다. 월경량이 보통인 경우는 1,836명(72.3%), 월경주기의 규칙성은 2일 정도의 차이가 805명(32.2%), 3일 정도의 차이가 806명(32.2%)이었으며 피임약을 과거에 복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205명(89.9%)이었다.

2. 한국과 미국여대생간의 월경 특성의 차이

두 집단의 연령분포는 한국여대생의 평균연령이 20.1세, 미국여대생의 평균연령이 23.9세로서 동일하지 않았다($t=-12.567, p=.000$). 초경연령에 있어서 한국여대생의 평균이 13.5세,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13.0세($t=5.999, p=.000$), 월경기간에서 한국여대생의 평균이 5.4일,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4.9일($t=6.292, p=.000$), 그리고 월경주기에서 한국여대생의 평균이 30.2일,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28.8일($t=7.791, p=.000$)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한국과 미국 여대생간의 성역할 수용도의 차이

성역할 수용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한국여대생이 47.2점,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49.5점으로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356, p=.000$). 즉 미국여대생들이 한국여대생들보다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더욱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과 미국 여대생간의 월경에 대한 태도의 차이

월경에 대한 태도는 다섯가지 범주 모두에 있어서 한국여대생, 미국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경은 여성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현상

입”의 범주 1에 대해서는 한국여대생의 평균이 55.8점,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48.8점($t=9.708, p=.000$), “월경은 귀찮은 현상임”의 범주 2에 대해서는 한국여대생의 평균이 25.9점,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27.6점($t=-5.307, p=.000$), “월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의 범주 3에 대해서는 한국여대생의 평균이 24.9점,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23.2점($t=9.206, p=.000$), “월경은 시작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임”의 범주 4에 대해서는 한국여대생의 평균이 23.9점,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25.4점($t=-4.699, p=.000$), 그리고 “월경은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미쳐서도 안되는 현상임”의 범주 5에 대해서도 한국여대생의 평균이 19.7점, 미국여대생의 평균이 25.2점($t=-9.792, p=.000$)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다섯가지 범주의 월경에 대한 태도 모두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월경은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에 더욱 동의하였고, 월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미국여대생이 한국여대생보다 월경을 더욱 귀찮은 현상으로 생각하였고, 월경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더욱 동의하였으며, 월경이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미쳐서도 안되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5. 한국과 미국여대생 간의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차이

전체대상자들의 월경불편감 점수는 “통증, 집중력 저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수분축적, 부정적 정서”의 6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증” 범주에 대해서는 월경전기와 월경기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F=20.206, p=.000, F=149.215, p=.000$)가 있었으나 월경간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777, p=.183$). “집중력 저하” 범주에 대해서는 월경기에는 유의한 차이($F=61.999, p=.000$)가 있었으나 월경전기와 월경간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4.293, p=.038, F=6.033, p=.014$). “행동변화” 범주에 대해서는 월경전기와 월경기에는 유의한 차이($F=52.406, p=.000, F=226.304, p=.000$)가 있었으나 월경간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528, p=.217$). “자율신경계 반응” 범주에 대해서는 월경전기와 월경기에는 유의한 차이($F=32.735, p=.000, F=76.111, p=.000$)가 있었으나 월경간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50, p=.823$). “부정적 정서” 범주에 대해

서는 월경전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341$, $p=.559$) 월경기와 월경간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1.697$, $p=.000$, $F=12.031$, $p=.001$). “수분축적” 범주에 대해서는 월경전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3.337$, $p=.068$) 월경기와 월경간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961$, $p=.003$, $F=14.603$, $p=.000$).

즉 월경전기에는 통증,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의 범주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월경기에는 통증, 집중력 저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부정적 정서, 수분축적의 6개 범주에서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월경간기에는 부정적 정서, 수분축적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DQ 전체점수에 대해서는 월경전기, 월경기, 월경간기 모두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4.530$, $p=.000$, $F=122.965$, $p=.000$, $F=56.814$, $p=.000$).

월경의 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들 중심한 순서에 따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월경전기

- 한국 여대생 : 허리가 아프다($M=3.60$), 배가 아프다($M=3.47$), 피곤하다($M=3.37$), 예민해진다($M=3.17$), 꿈쩍하기 싫다($M=3.15$), 기분이 자주 바뀐다($M=3.01$), 유방이 아프다($M=2.98$).
- 미국 여대생 : 피곤하다($M=3.27$), 예민해진다($M=3.23$), 기분이 자주 바뀐다($M=3.14$), 허리가 아프다($M=2.81$), 유방이 아프다($M=2.79$), 우울하다($M=2.55$), 긴장이 된다($M=2.53$).
- 전체 대상자 : 허리가 아프다($M=3.47$), 피곤하다($M=3.36$), 배가 아프다($M=3.31$), 예민해진다($M=3.18$), 기분이 자주 바뀐다($M=3.03$), 유방이 아프다($M=2.95$), 낮잠을 자거나 눕는다($M=2.78$).

월경기

- 한국 여대생 : 배가 아프다($M=3.82$), 허리가 아프다($M=3.78$), 피곤하다($M=3.44$), 꿈쩍하기 싫다($M=3.42$), 예민해진다($M=3.12$), 낮잠을 자거나 눕는다($M=3.03$), 집에만 있게 된다($M=3.03$).
- 미국 여대생 : 피곤하다($M=2.78$), 배가 아프다($M=2.58$), 기분이 자주 바뀐다($M=2.42$), 예민해진다($M=2.36$), 낮잠을 자거나 눕는다($M=2.24$), 팔다리가 붓는다($M=2.21$), 허리가 아프다($M=2.19$).
- 전체 대상자 : 배가 아프다($M=3.62$), 허리가 아프다($M=3.53$), 피곤하다($M=3.34$), 꿈쩍하기 싫다

($M=3.18$), 예민해진다($M=3.00$), 낮잠을 자거나 눕는다($M=2.90$), 기분이 자주 바뀐다($M=2.82$).

월경간기

- 한국 여대생 : 피곤하다($M=1.89$), 낮잠을 자거나 눕는다($M=1.86$), 기분이 자주 바뀐다($M=1.81$), 외로운 기분이 든다($M=1.80$), 여드름이 난다($M=1.73$), 우울하다($M=1.72$), 두통이 있다($M=1.71$).
- 미국 여대생 : 피곤하다($M=2.28$), 예민해진다($M=1.96$), 여드름이 난다($M=1.94$), 기분이 자주 바뀐다($M=1.91$), 낮잠을 자거나 눕는다($M=1.88$), 우울하다($M=1.88$), 두통이 있다($M=1.86$).
- 전체 대상자 : 피곤하다($M=1.95$), 낮잠을 자거나 눕는다($M=1.86$), 기분이 자주 바뀐다($M=1.82$), 외로운 기분이 든다($M=1.80$), 여드름이 난다($M=1.76$), 예민해진다($M=1.74$), 우울하다($M=1.74$).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한국 여대생들이 월경전후기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통증 종류이며 그에 따라서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월경간기에는 피로를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 여대생들은 월경전후기에는 부정적 정서를 많이 호소하며 통증 호소 정도는 한국여대생들보다 덜했고, 월경간기의 경향은 한국여대생과 유사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MDQ를 6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 사이의 호소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경전기에는 자율신경계 반응($t=7.079$, $p=.000$), 행동변화($t=8.310$, $p=.000$), 집중력저하($t=3.010$, $p=.003$), 통증의 범주($t=4.778$, $p=.000$)와 전체($t=11.117$, $p=.000$)에서는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유의하게 호소 정도가 심했으나 수분축적($t=-1.419$, $p=.156$), 부정적 정서($t=.927$, $p=.354$) 범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월경기에는 모든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증상 호소 정도가 심했다(MDQ1 ; $t=11.798$, $p=.000$, MDQ2 ; $t=18.608$, $p=.000$, MDQ3 ; $t=10.228$, $p=.000$, MDQ4 ; $t=10.235$, $p=.000$, MDQ5 ; $t=14.946$, $p=.000$, MDQ6 ; $t=3.263$, $p=.001$, MDQ total ; $t=16.404$, $p=.000$).

월경간기에는 부정적 정서($t=-2.063$, $p=.004$)와 수분축적($t=-3.016$, $p=.003$) 범주에서 미국여대생이 한국여대생보다 유의하게 증상 호소 정도가 심했고 나

머지 다른 범주인 자율신경반응($t=.309, p=.757$), 행동변화($t=-.757, p=.411$), 집중력 저하($t=-2.063, p=.028$), 통증($t=-1.149, p=.25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점수로 볼 때는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증상 호소정도가 심한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103, p=.000$).

6.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수용도 및 대상자의 월경특성과의 관계

월경주기의 규칙성은 초경연령(전체 : $r=.122, p=.000$, 한국 : $r=.109, p=.000$, 미국 : $r=.127, p=.011$) 월경주기(전체 : $r=.307, p=.000$, 한국 : $r=.296, p=.000$, 미국 : $r=.378, p=.000$), 월경기간(전체 : $r=.142, p=.000$, 한국 : $r=.135, p=.000$, 미국 : $r=.113, p=.024$)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즉 초경연령이 늦을수록 불규칙적이었으며, 월경주기와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규칙적이 되었다. 또한 월경량과 월경기간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서, 월경기간이 긴 경우일수록 양이 많은 편이었다(전체 : $r=.337, p=.000$, 한국 : $r=.323, p=.000$, 미국 : $r=.392, p=.000$). 이외에도 미국여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월경량과 분만회수($r=-.200, p=.000$), 월경량과 초경연령($r=.104, p=.039$), 월경량과 월경기간($r=.392, p=.000$), 월경량과 월경주기($r=-.121, p=.023$) 사이에 약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수용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관하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월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수용도에서는 전체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월경은 귀찮은 현상임” 범주와 성역할수용도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r=-.286, p=.000$)가 있어서 성역할수용도 정도가 낮을수록 월경을 귀찮은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경전후기의 불편감 정도와 “월경은 여성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현상임” 범주와 “월경은 시작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임” 범주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전체 : $r=.416, p=.000$, 한국 : $r=.477, p=.000$, 미국 : $r=.390, p=.000$)가 있었다. 한국여대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그 외에도 월경이 여성을 약화시키는 현상이라고 생각할수록 월경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었으며($r=.385, p=.000$), 월경이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r=.323, p=$

$.000$)을 보였고, 또한 예측이 가능할수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r=.317, p=.000$). 미국여대생의 경우에는 성역할 수용도가 높을수록 월경이 여성을 약화시키는 현상이며($r=.382, p=.000$)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r=.310, p=.000$), 월경이 귀찮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r=.362, p=.000$)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한국여대생과 동일하게 월경의 예측이 가능할수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r=.396, p=.000$)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월경전기에 호소하는 증상이 심할수록 월경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았다($r=.524, p=.000$).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월경주기, 월경기간, 월경량과 월경전후기 불편감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다음 주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월경전후기 불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Woods, Most, Dery(198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월경전후기 증후군은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이 있는 여성, 우울성향이 있는 여성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Huntington, Wallace, 1977). 그 외에 월경전후기 불편감에 대한 상관요인으로 월경의 시작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인지된 스트레스, 월경 중의 독특한 행동, 연령 등도 지적된 바 있다(Williams, 1989). 심리적 요인들도 종종 월경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요인으로는 초경연령, 초경에 대한 반응, 월경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초경에 대한 준비 정도, 10대에 경험한 월경시의 불편감 정도 등을 들 수 있다(Paige, 1971).

이상과 같은 다양한 영향요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월경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거의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것 중의 하나는 월경전후기 불편감에 대한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인 기대, 태도, 학습의 영향이다. 문화가 다른 여성들은 월경전후기의 다양한 증상의 호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A. Most, Woods, Dery, B. Most, 1981),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미국여대생들이 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호소하는 반면 한국여대생들은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여대생과 한국 여대생 사이의 초경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서 한국여대생들의 초경연령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월경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역시 문화적인 차이는 존재하나 인종적인 차이는 없다는 Das-hiff & Buchanan(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문화나 하위문화 내에서 문화적 요인과 사회화는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 월경전후기 불편감 호소와 기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Woods, Most, Dery, 1982) 이들은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성역할수용도가 낮을수록 월경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Berry(197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월경에 의한 불편감이 클수록 즉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월경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도 Levy(1976), Nathanson(1975), Woods(1985), Wilcoxon et al.(1976), Woods, Dery & Most(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월경주기와 관련된 심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차후의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월경주기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의 사건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Wilcoxon, Schrader & Sherif, 1976). 이상과 같이 월경전후기 불편감은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만 또는 생물적 현상에 의해서만 중재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Woods, Most & Dery, 1982). 따라서 월경주기의 생리적, 생물적 측면들은 심리적 효과와 문화적 기대와 서로 얽히고 그것에 의해서 조건화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인종과 문화에 따른 개별적이며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Dempsey & Gesser, 1995; Kuo & Kavanagh, 1994; Butrin, 1990).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려면 각 문화마다 독특한 전통적인 가치관, 신념, 행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밝혀진 문화 간의 차이 또는 동질성 등은 향후 월경전후기 불편감에 대한 간호중재를 개발, 적용, 평가하는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7년 4월까지 한국에서는 총 13개의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미국에서는 동부, 중

부, 서부에 소재한 총 4개 간호대학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전체 대상자 중 한국 여대생은 2,145명이었고, 미국 여대생은 412명으로서 총대상자수는 2,557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73세, 평균초경연령은 13.38세였고, 월경의 평균주기는 29.97일, 월경의 평균기간은 5.32일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경연령, 월경기간, 월경주기에 있어서 한국여대생과 미국여대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성역할 수용도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미국여대생들이 한국여대생들보다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더욱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월경에 대한 태도는 다섯가지 범주에 걸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월경불편감 점수는 월경전기에는 통증,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의 범주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월경기에는 통증, 집중력 저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부정적 정서, 수분축적의 6개 범주에서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월경간기에는 부정적 정서, 수분축적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DQ 전체점수에 대해서는 월경전기, 월경기, 월경간기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월경의 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한국여대생들이 월경전후기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통증종류이며 반면 미국여대생들은 월경전후기에는 부정적 정서를 많이 호소하며 통증 호소 정도는 한국여대생들보다 덜했고, 월경간기의 경향은 한국여대생과 유사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6. 월경주기의 규칙성은 초경연령, 월경주기, 월경기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7.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수용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볼 때 “월경은 귀찮은 현상임” 범주와 성역할수용도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월경은 여성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현상임” 범주와 “월경은 시작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임” 범주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 본 연구결과와 발견된 한국과 미국여대생 사이의 차이를 기반으로 삼아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월경전후기 불편감에 대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방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2. 문화적인 차이가 간호중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3.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질적연구의 실시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김정은 (1992). 일부여대생의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수용도의 관계. 모자간호학회지, 2(1), 55-69.

김은주 (1987). 인성과 월경전기 증후군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8(1), 80-93.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공역 (1995). 성의 심리학. 서울: 이대출판부.

김애경 (1997). 월경전 증후군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1), 31-40.

윤가현 (1993). 성심리학. 서울: 성원사.

이충원 (1977). 자살기도와 월경주기간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16(2), 185-190.

정현숙 (1996). 사춘기 여성들의 월경 경험. 간호학회지, 26(2), 257-270.

Abraham, G. E. (1983). Nutritional Factors in the Etiology of the Premenstrual Tension Syndromes. The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28(7), 446-464.

Bernsted, L., Luggin, R. & Petersson, B. (1984). Psychosocial considerations of the premenstrual syndrom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9, 455-460.

Berry, C. & McGuire F. L. (1972). Menstrual distress and acceptance of sexual role,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14(1), 83-87.

Brooks-Gunn, J. & Ruble, D. N. (1980). The Menstrual Attitude Questionnaire, Psychosomatic Medicine, 42(5), 503-512.

Bruce, J., & Russell, G. F. M. (1962). Premenstrual tension, A study of weight changes and balances of water, sodium, and potassium, The Lancet, August 11, 267-271.

Butrin, J. E. (1990). The experience of culturally diverse nurse-client encounters, University of Minnesota, Doctoral Dissertation.

Coutts, L. B. & Berg, D. H. (1993). The portrayal of the menstrual woman in menstrual product advertisement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4(2), 179-191.

Dalton, K. (1968). Menstruation and Examinations, The Lancet, December 28, 1386-1388.

Dashiff, C. J. & Buchanan, L. A. (1995). Menstrual attitude among black and white premenarcheal girl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Jul/Sep, 8(3), 5-14.

Dempsey, P., & Gesser, T. (1995). Beliefs, values, and practices of Navajo childbearing wome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Dec, 17(6), 591-604.

Frank, E. P. (1986). What are nurses doing to help PMS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February 1986, 137-140.

Friedman, J., Meares, R. (1979). The Menstrual Cycle and Habituation, Psychosomatic Medicine, 41(5), 369-381.

Gough, H. (1982). Moody Blues, Nursing Mirror, March 17, 1982, 34-36.

Gump, J. P. (1972). Sex role attitu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Issues, 28, 79-92.

Huntington, K. M., & Wallace, M. G. (1977). Treatment of the premenstrual syndrome. British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84, 784-788.

Kessel, N., Coppen, A. (1963). The Prevalence of Common Menstrual Symptoms, The Lancet, July 13, 61-64.

Kuo, C. & Kavanagh, K. H. (1994). Chinese perspectives on culture and menstrual health,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Nov/Dec, 15(6), 551-567.

Leon, G. R., Phelan, P. W., Kelly, J. T. & Patten, S. R. (1986). The Symptoms of Bulimia and the Menstrual Cycle, Psychosomatic Medicine, 48(6), 415-422.

Levy, R. (1976). Psychosomatic symptoms and women's protest: Two types of reaction to structural strain in the family. Journal of Health

- and Social Behavior, 17, 122–134.
- Little, B. C., Zahn, T. P. (1974). Changes in Mood and Autonomic Functioning During the Menstrual Cycle, Psychophysiology, 11(5), 579–590.
- Luggin, R., Bernsted, L., Petersson, B. & Jacobsen, A. T. (1984). Acute psychiatric admission related to the menstrual cycle, Acta psychiatr. scand., 69, 461–465.
- Mandell, A. J., Mandell, M. P. (1967). Suicide and the Menstrual Cycle, JAMA, 200(9), 132–133.
- Moos, R. H. (1968). The Development of a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Psychosomatic Medicine, 30(6), 853–867.
- Morton, J. H., Additon, H., Hunt, L., & Sullivan, J. J. (1953).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65, 1182.
- Most, A. F., Woods, N. F., Dery, G. K. & Most, B. M. (1981). Distress associated with menstruation among Israeli women, Int. J. Nurs. Stud., 18, 61–71.
- Motiff, T. E., Caspi, A., Belsky, J. & Silva, P. A. (1992). Childhood experience and the onset of menarche : A test of a sociological model, Child Development, 63, 47–58.
- Nathanson, C. A. (1975). Illness and the Feminine Role, A Theoretical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9, 57–62.
- Paige, K. E. (1971). Effects of Oral Contraceptives on Affective Fluctuations Associated with the Menstrual Cycle, Psychosomatic Medicine, 33(6), 515–537.
- Powell, B., & Reznikoff, M. (1976). Role conflict and symptoms of psychological stress in college-educated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473–479.
- Smith, S. L. & Sauder, C. (1969). Food Cravings, Depression, and Premenstrual Problems, Psychosomatic Medicine, 31(4), 281–287.
- Suarez-Murias, E. L. (1953). The psychophysiological syndrome of premenstrual tension with emphasis on the psychiatric aspect. International Rec. Medicine, 166, 475.
- Sutherland, H., & Stewart, I. (1965). A critical analysis of the premenstrual syndrome. The Lancet, June 5, 1180–1183.
- Wilcoxon, L. A., Schrader, S. L. & Sherif, C. W. (1976). Daily Self-Reports on Activities, Life Events, Moods, and Somatic Changes during the Menstrual Cycle, Psychosomatic Medicine, 38(6), 399–417.
- Willaims, B. S. (1989). Psychosocial correlates of premenstrual distress in mothers and daughter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Doctoral Dissertation.
- Woods, N. F., Most, A. & Dery, G. K. (1982). Estimating Perimenstrual Distress: A Comparison of Two Method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5, 81–91.
- Woods, N. F., Most, A. & Longenecker, G. D. (1985). Major Life Events, Daily Stressors, and Perimenstrual Symptoms, Nursing Research, 34, 263–267.
- Woods, N. F. (1985). Relationship of Socialization and Stress to Perimenstrual Symptoms, Disability, and Menstrual Attitudes, Nursing Research, 34(3), 145–149.

– Abstract –

Key concept : Perimenstrual discomfort, Menstrual attitude, Sex role acceptance

Transcultural Differences on Perimenstrual Discomforts, Menstrual Attitudes and Sex Role Accepta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Hong, Kyung Ja · Park, Young Sook*
Kim, Jung Eun* · Kim, Hae W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transcultural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02)740–8816 Fax. 02)740–4103

**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Tel. 0391)497–428 Fax. 0391)497–602

tural differences on perimenstrual discomforts, menstrual attitudes and sex role accepta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2557 nursing students were selected from 13 universities all around Korea, and 4 universities in the eastern, western, and middle areas of the United State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MDQ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by Moos), the MAQ (Menstrual Attitude Questionnaire), and the Sex Role Acceptance Scale, the subjects answered the MDQ for three points (premenstrual, menstrual, intermenstrual based on their recollections) between July, 1996 and April, 1997.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e of menarche, duration of menstruation, and menstrual cycle between the Koreans and the Americans.
2. As for sex role acceptance, Americans more frequently denied the traditional female role than did Korean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five categories of menstrual attitude (menstruation is a phenomena that weakens women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menstruation is a bothersome phenomena, menstruation is a natural phenomena, menstruation onset is a predictable phenomena, and menstruation is a phenomena that does not influence womens' behaviors non is expected to).
4. For the menstrual discomfort scor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all six categories of the MDQ (pain, attention deficit, behavioral changes, ANS response, water retention, and negative emotion) for the three points (premenstrual, menstrual, intermenstrual period).
5. The most common complaints for the Korean women were pain during the perimenstrual period and fatigue during the intermenstrual period. In contrast, for the Americans the most common complaint was negative emotions during the perimenstrual period, but less pain than the Koreans, and a similarity to Koreans during the intermenstrual period.
6. Regularity of the menstrual cycl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of menarche, menstrual cycle, and duration of menstruation.
7. Fo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of Perimenstrual discomforts, menstrual attitudes, and sex role acceptance,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for both group as follows :
 First, the MA category "menstruation is a bothering phenomena"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x role acceptance, second, the MA category "menstruation is a phenomena that weakens the women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MA category "menstruation onset is a predictable phenomena."

For the further research, it is recommended that efficient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perimenstrual discomforts, be developed and qualitative research to demonstrate the cultural differences as the feminism view point be done.